



크로즈 업

江原 第 4 地区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朴 孝 茂 씨

- ◎ ... 강원도 제 4 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朴孝茂씨 —
오늘도 炭鉱지대 제 1 선에서 광부와 그들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한치의 쉴 사이도 없이 바쁘다.
- ◎ ... 강원도에서 제일 큰 組合으로 발전한 제 4 지구 의료보험조합은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등을 管轄구역으로 하고 있는 最大 最高의 우수조합이다.
- ◎ ... 최대의 광산지대인 舍北邑의 고향은 太白山脈줄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전체 석탄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수한 동원탄좌, 삼척탄좌등이 자리잡고 있다.
- ◎ ... 朴孝茂대표이사는 20 여년간을 오로지 탄광지대에서 광부들과 함



께 苦樂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福祉事業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篤志家——.

그래서 오늘도 정제원 총무과장과 함께 광산촌에 醫療惠沢을 주느라 부산하다.

◎ … 「울고 들어왔다 울고 나간다는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余良이라는곳이 있는데 한국의 정서가 담뽁담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지만 이곳에 온 후 인정많은 여기 사람들에 정이 담뽁들었지요 이젠 떠나라고해도 떠나지를 못할것 같아요…」 朴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 … 강원 제 4 지구의 특색은 홍보위원을 215 명을 두고 弘報誌도 발간하고 있으며 특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단다.

「… 15,000 명을 목표로 조합원 자녀들의 요충검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꼭 실현될 것입니다. 37개 사업장 62,090 명이 의료보험대상자입니다. (피부양자 포함) 81년도 하반기 기생충검사실적은 수검대상 37,634 명중 21,631 명을 검사해서 양성자가 30 % (6,649 명) 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기생충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



◎ … 고려왕조가 망한후 李씨 朝鮮의 녹이 먹기 싫어 일평생을 숨어 살았다는 고려遺臣들의 杜門洞이 이곳 정선에도 있단다. 그리하여 이곳이 본관이 되어버린 姓氏도 여럿이 있다고 한다.

「… 우리 조합에서는 81년도에 난관시술 140 명을 하여 가족계획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지요.

작년통계에 의하면 피보험자중 광부들 65%가 의료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0세에서 14세세까지가 45%로 가장 많았고 가입여성이 29%로 어린이병과 부인병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병별로 보면 호흡기질환이 39%, 소화기질환 14%, 전염병과 기생충병이 12%로서 이 통계를 보아서도 기생충검사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주요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유산합병증이 제일 많아서 来院者중 80%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기생충계몽 홍보가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지요. 더구나 기생충검사는 의료보험증점인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으로 100%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다만 우리 조합은 장제비, 분만비 분만 수당을 지급해서 조합원이 의료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게 해주고 있지요.

이곳은 탄광지대 임으로 부양율이 가장 높습니다. —」

朴孝茂대표이사가 그의 소신을 자신있게 말하는 가운데 일의 情熱이 담뿍 담겨 있음을 기자는 느끼고 있었다.

사진설명=박효무 대표이사(左) 정제원 총무과장(中) 정병고 홍보실장(右) 한상진 사무국장(右)의 대담광경(34p의 上下)
35p 上下는 광부가족들의 기생충 검사광경

